

인앱결제 강제정책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분석

조영기 사무국장 (ykcho@kinternet.org)

한국인터넷기업협회

요약

- 본 연구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내 정책 수립 및 집행 방향 설정을 위해,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해외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함
- '21.8. 미국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및 외부 앱스토어 설치 허용을 규정한 오픈 앱마켓법 발의·추진, EU 역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및 타사 앱스토어에서의 앱 다운로드 허용을 규정한 디지털시장법을 추진 중
-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(ACM),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(ACCC), 러시아 연방반독점청(FAS), 인도 경쟁위원회(CCI)는 애플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, 네덜란드 ACM의 경우 '22.1.부터 애플에 총 5,000만 유로의 벌금 부과
- '19.3.부터 스포티파이를 시작으로 에픽게임즈, 미국 36개 주 및 워싱턴 D.C., 네덜란드 소비자 경쟁 청구 재단, 매치그룹 등이 애플·구글을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소송 제기
- 세계 각국 정부 및 국회·앱 개발자·소비자들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중, 앱마켓사업자의 정책이 전 세계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전반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배경

- 구글은 모바일앱에서 디지털콘텐츠(웹툰·음원·도서 등) 결제 시 구글의 ‘결제시스템’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‘인앱결제 강제정책’의 전면 적용을 발표(‘20.7.)
- 구글의 정책발표 이후, 전 세계적으로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
 -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이고, 미국 역시 유사 입법 추진 중
- 그러나,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,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으로, 앱 생태계가 비단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의 정책 강행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
- 따라서, 각국의 입법·판결 사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해외의 규제 동향이 단편·개별적으로만 전달되고 있어,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내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하고자 함

해외 입법 현황

- (미국) 오픈 앱마켓법(Open App Markets Act)
 - 입법개요

- 발의일 : (상원)‘21.8.11. / (하원)‘21.8.13.
- 발의자 : 미 상원 양당 공동발의(S.2710, 8.11), 미 하원 동반법안(companion bill)으로 발의(H.R.5017, 8.13)
 - (상원) 리처드 블루멘탈(Richard Blumenthal) 민주당 상원의원 & 마샤 블랙번(Marsha Blackburn) 공화당 상원의원 공동
 - (하원) 행크 존슨(Hank Johnson) 민주당 하원의원 & 켄 벅(Ken Buck) 공화당 하원의원 공동
- 진행현황 : ‘22.2. 상원 법사위 통과, 전체회의만 남겨두고 있음(‘22.5. 기준)

- 주요 내용

- 앱마켓사업자가 앱 배포를 조건으로 모바일콘텐츠등 제공사업자에게 인앱결제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
-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

- (EU) 디지털시장법(Digital Markets Act, DMA)
 - 입법개요

- 발의일 : ‘20.12.15.(초안 발표)
- 진행현황 : ‘22.3. EU 집행위원회·EU 이사회·유럽의회 잠정 합의안 발표, 22년 말까지 입법절차 완료 예정

- 주요 내용
 - 빅테크 플랫폼을 ‘게이트키퍼(gatekeeper)*’로 지정, 온라인마켓, 앱스토어, 광고 등 디지털 시장에 대한 독과점 행위 규제(위반시 전세계 매출액 10% 이하 벌금 부과)
 - * 시가총액 750억 유로, 연 매출 75억 유로, 월간 사용자 수 4,500만 명 이상 IT 기업(구글, 애플, 아마존 등 포함)
 - 구글·애플 등 모바일 OS 사업자에게 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‘사이드로딩(sideloading)’ 허용 요구
 -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

해외 규제 현황

-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(Authority for Consumers & Markets, ACM)
 - '21.12. 네덜란드 ACM은 애플이 데이팅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제3자 결제시스템 허용 등의 시정조치 명령, 불이행 시 주당 500만 유로의 벌금 부과 예고
 - '22.1. 애플은 외부 결제 허용 발표, 그러나 ACM은 애플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주 500만 유로(약 66억 원)의 과태료 부과
 - (1차 이행안) 애플이 제공하는 인앱결제 또는 외부결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고, 타 결제 수단 선택시 27%(기존보다 3% 낮은)의 수수료 징수
 - ※ 10주 연속 벌금 부과, 애플은 법정 최고액인 5,000만 유로 모두 납부
 - '22.3. 애플은 새로운 시정 조치 이행안을 제출했으나 ACM은 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, 애플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 논의 중
 - (2차 이행안) 인앱결제와 외부결제, 웹사이트 링크 결제를 전면 허용하지만, 외부결제 이용 시 위험성 경고 화면을 표시하도록 의무화, 수수료 변동 없음
 - '22.5. 데이팅 앱 틴더(tinder)의 운영사 ‘매치그룹(MTCH)’으로부터 구글플레이의 반경쟁적 혐의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예비조사 착수
-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(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, ACCC)
 - '21.3. ‘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조사(Digital platform services inquiry)’ 중간 보고서 발표
 - 인앱 구매를 위한 결제시스템을 애플과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
- 러시아 연방반독점청(Federal Antimonopoly Service, FAS)
 - '21.10. 러시아 FAS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의 인앱결제 강제를 비판하며 반독점 조사를 실시
 - 성명을 통해 “애플이 iOS 앱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”라고 밝혔으며, 독점금지 소송도 함께 제기
 - '22.5. 모스크바 법원은 FAS이 애플에 앱스토어 인앱결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

- 인도 경쟁위원회(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, CCI)
 - '21.10. 인도 스타트업의 모임 ADIF는 인도 CCI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임시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
 - CCI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조사 마무리, 결과 발표 후 후속 조치 단행 예상 ('22.5. 기준)
 - '22.4. CCI 조사결과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이 '불공정하고 차별적'이라는 결론 도출

해외 소송 현황

- 스포티파이(Spotify)
 - '19.3.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'스포티파이', 애플 상대로 EU 집행위원회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
 -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스포티파이 앱으로 결제하는 경우, 애플에 30%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애플뮤직과 스포티파이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입장
 - '21.4.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의 배포에 대한 통제력을 남용하여 인앱결제를 강요했다고 판단, 애플을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
 - ※ '22.3. 애플은 스포티파이 등과 같은 리더앱에 외부 링크를 통한 가입 및 콘텐츠 구매 허용, 구글은 스포티파이가 구글의 결제시스템이 아닌 대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다년 계약 체결
- 에픽게임즈(Epic Games)
 - '20.8. 게임제작·유통사인 '에픽게임즈'가 게임 포트나이트(Fortnite) 모바일 버전에 자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과 구글은 앱 마켓에서 포트나이트 앱 퇴출 및 개발자 계정 무효화, 에픽게임즈는 미 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
 - '21.9.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에게 앱 내 외부결제 링크 삽입을 허용하도록 명령
 - 다만, 앱스토어 내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과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 요구 등 그 외 쟁점에 대해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줌
 - 에픽게임즈는 미국 외에도 EU, 영국, 호주에서도 애플과 구글을 제
- 미국 36개 주 및 워싱턴 D.C.
 - '21.7.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
 -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30%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에 대한 문제 제기
- 네덜란드 소비자 경쟁 청구 재단(The Consumer Competition Claims Foundation)
 - '22.3. 애플 앱스토어 내 인앱결제 정책의 부당성을 이유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
 -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앱 내에서 콘텐츠를 구매한 유럽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소유자를 대신해 55억 유로(약 7조4026억 원)의 손해배상 요구
 - 애플의 독점적 관행과 불공정 약관에 의해 앱 개발자들이 비용 증가를 강요당했고, 이러한 비용 증가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었다는 입장

- 매치그룹(MTCH)
 - '22.5. 데이팅앱 틴더(tinder)의 운영사 '매치그룹(MTCH)',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
 -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

마무리

-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,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국회·앱 개발자·소비자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
- 이는 구글·애플과 같은 모바일OS 기반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이 각국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전반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- 이처럼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특정 국가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므로, 향후에도 주요국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별첨

표 |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 규제 현황

구분	국가/기업	일시	내용
입법 현황	EU	'20.12.	- 디지털시장법(Digital Markets Act) 초안 발표
	미국	'21.08.	- 오픈 앱 마켓법(Open App Markets Act) 상하원 공동 발의
규제 현황	호주 ACCC	'21.03.	-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조사(Digital platform services inquiry)' 중간 보고서' 발표
	네덜란드 ACM	'21.12.	- 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주당 500만유로 부과
		'22.05.	- 구글플레이 반경쟁적 협의에 대한 예비조사 착수
	러시아 FAS	'21.10.	- 러시아 연방반독점청(FAS)은 애플 인앱결제 반독점 조사 실시 및 소송 제기
인도 CCI	'21.10.	- ADIF가 CCI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규제 요청	
소송 현황	스포티파이	'19.04.	- EC에 애플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
	에픽게임즈	'20.08.	- 포트나이트 자체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앱스토어 퇴출 - 미 법원에 애플과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
	미 36개주 및 워싱턴 D.C.	'21.07.	- 캘리포니아 법원에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
	네덜란드 소비자경쟁청구재단	'22.03.	- 애플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
	매치그룹	'22.05.	- 캘리포니아 법원에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